

# 김달수 문학의 原点으로서의 『반란군(叛亂軍)』 고찰

金鶴童\*

## 目次

머리말

1. 김달수 작품에 대한 다양한 평가
2. 김달수 문학의 원점은 『후예의 거리(後裔の街)』라는 기존 평가의 문제점
3. 『반란군(叛亂軍)』과 집필되지 못한 『태백산맥(太白山脈)』 속편
4. 『반란군(叛亂軍)』의 작품 분석
  - 4-1. 작품의 사상적 배경
  - 4-2. 작가의 체험을 토대로 한 작품의 형상화
  - 4-3. 작가의 현실 인식과 조국 통일에 대한 염원

맺음말

## 머리말

김달수(金達壽)는 재일한국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그에 대한 평가는 생전에 「살아 있는 재일 조선 문학사(生きている在日朝鮮文学史)」<sup>1)</sup>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하고, 또 재일한국인 문학가들의 「문학적 원천(文学的源泉)」<sup>2)</sup>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재일한국인 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재일한국인 문학 전공.

1)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태어나면 그곳이 고향(生まれたらそこがふるさと)』 헤이본사(平凡社, 1999년 112쪽.

2) 주(1) 『태어나면 그곳이 고향(生まれたらそこがふるさと)』 112쪽.

크다. 김달수가 소설가로서 활발히 활동한 시기는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를 <세 시기><sup>3)</sup>로 나누었을 때, 제1기에 해당하는 1960년대 중반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를 지나면 김달수의 문학작품 활동은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 한편, 한·일 고대사에 있어서의 문화교류 및 「일본 속의 한국문화」와 관련된 저서는 눈에 띄게 늘어난다.

그런데 김달수가 활약했던 제1기 재일한국인 문학의 특징에 대하여 이한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 시기의 한반도는 좌익과 우익의 첨예한 대립으로 정치적인 혼란기를 맞게 되고, 남한 정부와 북조선이라는 서로 체제가 다른 분단된 두 개의 정권이 수립된다. 고국의 정치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인 교포사회도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과 ‘재일조선인 연맹’으로 분열된 채 미군정과 일본정부의 탄압 아래 각종 정치적사건과 마주하게 되면서 갈등을 겪게 된다. 이 시기는 좌익성향이 강했던 시대로서 교포작가들이 문학을 통해서 조국의 국가건설에 참여한다는 투철한 자세로 작가활동을 했던 시기였다.<sup>4)</sup>

이렇게 한반도의 정치적인 상황이 급변 하던 시기에 발표된 김달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식민지배 아래에서 신음하는 지식인의 갈등과 조국해방의 꿈을 그린 『후예의 거리(後裔の街)』(『民主朝鮮』1946.4~1947.5)와 『현해탄(玄海灘)』(『新日本文学』1952.1~1953.11)이 있고, 좌우 분열과 외세의 개입이라는 상황 속에서 조국의 진정한 독립을 모색한 작품으로 『박달의 재판(朴達の裁判)』(『新日本文学』1958. 11)과 『태백산맥(太白山脈)』(『文化評論』1964.9~1968.9) 등이 있다.

그런데 소설 『태백산맥(太白山脈)』이 『현해탄(玄海灘)』의 속편이라는 관점에서의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태백산맥(太白山脈)』의 原点이라 할 수 있는 중편소설 『반란군(叛亂軍)』(『潮流』1949.8~9)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어진 적이 거의 없다. 다만 「〈여수·순천 사건〉을 소재로 삼은 최초의 소설은 김달수의 『반란군(叛亂軍)』이다」<sup>5)</sup>라는 하야시 고지(林浩治)의 평가와, 「김달수의 작품 중에서 사회주의 사상에 근거

3) 이한창은 박사학위 논문 「재일교포 문학의 작품성향 연구 - 정치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1996년 12월)에서, 해방 이후 1990년 중반까지의 재일한국인 문학을 제1기(해방 직후~1960년대 중반), 제2기(1960년대 중반~1970년대 말), 제3기(1980년~1990년대 중반)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4) 주(3) 「재일교포 문학의 작품성향 연구 - 정치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 1쪽.

5) 辛基秀編著 『김달수 르네상스(金達壽ルネサンス)』 解放出版社 2002년, 41쪽.

한 최초의 작품은 『반란군(叛亂軍)』이다」<sup>6)</sup>라고 언급한 최효선의 견해 등이 있을 뿐이다.

남북한의 단독정부 수립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제주 4·3 사건〉 및 〈여수·순천 사건〉의 발생으로 조국의 분단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집필된 『반란군(叛亂軍)』은 김달수 문학의 특징으로 규정되는 〈작가의 체험〉을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반란군(叛亂軍)』에서 엿보이는 의식과 사상 및 발표 시기 등의 고찰을 통하여 『현해탄(玄海灘)』과 『태백산맥(太白山脈)』은 물론이고 김달수 문학의 母胎가 되는 原点에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 1. 김달수 작품에 대한 다양한 평가

『반란군(叛亂軍)』을 비롯한 김달수 문학에서 보이는 특징들은 결국 재일한국인 문학 제1기의 그것들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오랫동안 재일한국인 문학을 연구해온 이소가이 지로(磯貝治良)<sup>7)</sup>는 김달수 문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달수가 전후=해방 후의 일본어에 의한 조선인문학, 즉 재일조선인 문학의 효시라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다. 재일조선인 문학으로서 현재의 유미리, 현월, 가네시로 가즈키 등으로 연결되는 〈재일〉문학의 형성자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일조선인 문학의 초창기부터 1960년대에 김석범, 김태생, 김시중, 김학영, 이희성 등이 등장 할 때까지 거의 20년간, 김달수는 일본어 문화권에서 고군분투로 문학 활동을 지속해 왔다.

(金達壽が戦後=解放後の日本語による朝鮮人文学、つまり在日朝鮮人文学の嚆矢であることは、だれもが認めることだ。在日朝鮮人文学として現在の柳美里、玄月、金城一紀などにつながる〈在日〉文学の形成者であった事実は、忘れられてはならない。在日朝鮮人文学の草創期から1960年代に金石範、金泰生、金時鐘、金鶴泳、李恢成らが登場するまでのほぼ20年間、金達壽は日本語文化圏において孤軍奮闘の文学活動を行ったのだ。8)

6) 최효선 『해협에 선 사람(海峽に立つ人)』 批評社, 1998년, 28쪽.

7) 1937년 아이치(愛知)현 출생. 1977년부터 나고야(名古屋)를 중심으로 「재일 조선인 작가를 읽는 모임」을 주재하며, 모임의 문예지 『架橋』를 편집 발행하고 있다. 평론으로 『始原の光—在日朝鮮人文学論』(創樹社) 『戦後日本文学のなかの朝鮮韓国』(大和書房 등이 있고, 소설집 『일본의 벽(日本の壁)』(風琳堂), 장편소설 『在日疾風純情伝』(風琳堂) 등의 저서가 있다.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한 것은 역시 1946년 3월에 창간된 『민주조선』에 『후예의 거리』를 연재하기 시작하면서라고 해도 좋다. 이 잡지와 장편소설 『후예의 거리』의 등장인물 전후=해방 후 재일조선인 문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소설은 (그의)대표작 『현해탄』의 전편에 해당되는 독립작품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서울체험을 소재로 삼고 있다. 김달수는 식민지 시대의 자기체험을 민족의 역사로 그려냄으로써 출발하였다. 민족의 운명을 그려내려는 창작은 시종 변하지 않았다.

(本格的に創作活動を始めたのは、やはり1946年3月に創刊された『民主朝鮮』に『後裔の街』を連載しはじめてからと言っていいだろう。この雑誌と長編小説『後裔の街』の登場が、戦後=解放後在日朝鮮人文学の出発となった。この小説は、代表作『玄海灘』の前編にあたる独立作品で、第二次大戦期のソウル体験を題材にしている。金達寿は、植民地時代の自己体験を民族の歴史として描くことで出発したのだった。民族の運命を描くことにおいて、創作は終始変わらなかった。9)

그리고 조정래의 대하장편 『태백산맥(太白山脈)』을 일본어 번역본으로 출판하는데 교열자(校閲者)로서 커다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재일한국인 문학 연구자이기도 한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의 평가 역시 이소가이 지로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달수의 문학이 「재일조선인」을 대표하여 그것을 표상하고 대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그의 「자기 자신」=재일조선인이라는, 극히 순수한 자신과 민족의 정체성의 행복한 일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재일조선인의 「사소설」이 바로 재일조선인 문학이고, 그것은 재일조선인이 스스로의 자화상을 그려낸 것일 따름이다. 이회성과 김석범은 물론이고 김학영이나 이양지와 같은 재일조선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사소설」적인 작품을 많이 쓴 것도, 재일조선인 문학이 김달수 시대부터 이미 자연주의, 사소설이라는 일본 근대문학의 「왕도」를 걸어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항상 근대일본의 음화(陰画)이면서 「재일조선인」들의 사회적, 정치적, 개인적인 정체성의 확립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金達寿の文学が、「在日朝鮮人」を代表し、それを表象し、代行するものであることは、こうした彼の「自分自身」=在日朝鮮人という、きわめてナイーブな自己と民族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の幸福な一致に根拠を持っている。在日朝鮮人の「私小説」が在日朝

8) 이소가이 지로(磯貝治良) 『〈在日〉文学論』新幹社, 2004年, 115쪽.

9) 주(8) 『〈在日〉文学論』, 117쪽.

鮮人文学にほかならず、それは在日朝鮮人が自らの自画像を描いたものにほかならない。李恢成にしろ、金石範にしろ、金鶴泳や李良枝にしても、在日朝鮮人文学の有力な書き手たちが、「私小説」的な作品を多く書き残しているのも、在日朝鮮人文学が金達寿の時代からすでに自然主義、私小説という日本の近代文学の「王道」を歩むものにほかならなかったからであり、それは常に近代日本の陰画であり、「在日朝鮮人」たちの社会的、政治的、個人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ーの確立に深関わるものだったのである。10)

그러나 김달수의 사소설(私小説)적 작품성향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평가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대하장편소설 『화산도(火山島)』와 같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소설 창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김석범<sup>11)</sup>의 견해라 할 수 있다.

전후 「재일」 문학 활성화의 중심에는 김달수가 있는데, 그는 김사량 같은 작가들과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했던 계승자이기도 하고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전후 재일조선인 문학의 「원천」(川村湊)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중략)

「재일」 문학의 사소설적 작품은 일본인 독자들의 사죄 심리를 자극하여, 그 반사 작용으로 나타나는 동정을 이끌어내기 쉬운 문학 이전의 형태로 문학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요소를 가진다. (중략)

나는 이러한 사소설적인 현실체험에 의한 소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문제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상상력의 배제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이다. (중략)

이러한 일본의 조선에 대한 「타자인식(他者認識)」의 누락은 재일조선인 문학에서도 굴절된 채 튀겨 나오고 있어서, 일본의 사소설과는 다른 「재일」 문학의 식민지성을 떨치지 못한 사소설성으로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사소설은 단순한 소설작법의 문제만은 아니다.

戦後「在日」文学の草分けの中心は金達寿だが、彼は戦前の金史良たちの橋渡的な継承者であり、そして植民地支配から解放された戦後の在日朝鮮人文学の「源泉」(川村湊)的存在である。(中略)

10) 주(1) 『태어나면 그곳이 고향(生まれたらそこがふるさと)』 116, 117쪽.

11) 金石範, 1925년 오사카(大阪)출생. 14세 되던 해의 몇 개월과, 18세 되던 가을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어머니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지냄. 20세가 되던 1945년 봄에 중국으로 탈출하기 위해 서울에 와서 몇 개월 머물다 해방 직전에 일본으로 건너감. 같은 해 10월 해방된 조선으로 다시 건너왔다가 1946년 여름에 일본으로 돌아감. 교토(京都)대학 문학부 졸업. 朝鮮新報 기자 등을 거쳐 1967년에 소설 『까마귀의 죽음(鴉の死)』 발표. 1948년의 〈제주 4·3사건〉을 그려낸 대표작 『화산도(火山島)』(전7권, 1983~1997년)로 오사라기 지로(大仏次郎)상 毎日芸術상 수상 그 외에 『땅속의 환영(地の影)』 『만월(滿月)』 『허일(虛日)』 등 많은 작품이 있음 김달수에 이은 재일한국인 문학의 중심인물.

「在日」文学の私小説的作品は日本人読者の罪障感を刺激して、その裏返しの同情を引きやすい文学以前の形で文学として迎えられる要素を持つ。(中略)

私はこの私小説的な現実体験による小説を否定はしないが、好まない。好まないのは個人的な趣味のことではなく、それが想像力の排除によって成り立つからである。(中略)

この日本の朝鮮に対する「他者認識」の欠落は在日朝鮮人文学にも屈折ながら撥ね返っているのであって、日本の私小説とは違う、「在日」文学の植民地性を引きずった私小説性となって表われているといえよう。私小説は単なる小説の書き方の問題ではない。12))

이러한 김달수의 작품에 대한 김석범의 비판은 2001년에 가졌던 어느 좌담회<sup>13)</sup>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고바야시) 『현해탄』이나 『박달의 재판』과 같은 김달수의 작품을 되돌아볼 때 그의 위치는 어떻게 평가 될까요?

(小林) 『玄海灘』や『朴達の裁判』などの金達寿作品を振り返ってみて、彼の位置はどういうところにあつたでしょう。

(김석범)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현해탄』은 좋은 작품으로 그의 작품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달의 재판』도 일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지만 나는 그다지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재일조선인 문학」의 선배로서, 해방 전부터 김사랑 등과 교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김사랑보다는 나이가 어렸지만 해방 전후에 걸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문학운동에도 관여하여 작품을 썼습니다. 그러나 김사랑과는 다르게 사소실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달수는 1943년부터 조선총독부의 일본어 기관지인 『경성일보』의 기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친일파입니다. 그에게도 자기비판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현해탄』에서는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중략)

그에 대한 부작용은 『현해탄』의 속편으로 쓰인 『태백산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략)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에서 황국신민화의 선봉에서 하는 것이 싫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자기비판의 부족이 『태백산맥』으로 이어졌습니다. 문학작품으로서의 속편임에도 불구하고 『현해탄』을 극복하지 못했지요.

(金石範) ちょっと難しいんですよ。『玄海灘』はいい作品で、彼の作品の頂点だと思

12) 김석범 『국경을 초월하는 것(国境を超えるもの)』 文芸春秋, 2004, 121~124쪽.

13) 이노우에 히사시(井上ひさし)와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가 주도한 좌담회로, 슈에사(集英社)에서 전6권으로 출판한 『座談会 昭和文学史』의 제5권에 수록되었다.

ます。『朴達の裁判』も一般的には評価された作品ですけど、私はあまり評価しない。彼は「在日朝鮮人文学」の先輩で、戦前から金史良たちとつき合いのある人です。金史良よりは年は下だけれども、戦前と戦後をつなぐ役割をした人です。実際の文学運動にもかかわって作品を書いていた。でも、金史良とは違って、私小説的な方法をとっている。

金達寿さんは1943年から朝鮮総督府の日本語機関紙『京城日報』の記者をやっていた。そういう意味で、彼は親日派なんです。彼には自己批判もあったと思いますよ。けれども、『玄海灘』では徹底していない。(中略)

そのツケは『玄海灘』の続編として書いた『太白山脈』で出ています。(中略)

原因は何にあるのか。彼が朝鮮総督府の機関紙で、皇国臣民化の御先棒をかついでやるのが嫌になって日本に帰ってくるんですが、その自己批判の不足が『太白山脈』に受け継がれた。文学作品としては、続編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玄海灘』を越えていないですね。14)

김달수의 사소설적 작품들에 대한 김석범의 비판은 재일한국인 문학 제1기의 작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비판의 화살은 김달수에게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판의 핵심은 나라를 잃은 식민지 민족으로서의 재일한국인들이 겪은 뼈아픈 경험을 작품화해서 일본인들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려는 것은 진정한 문학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달수 문학의 근본적인 한계는 작가 자신의 체험을 다룬 작품 속에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경성일보(京城日報)』의 기자로 일한 친일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담아내지 못한 결과에서 온 것이라 하였다.

김석범과 같이 재일한국인 작가의 친일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는 식의 비판은 일본인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런데 김석범의 이와 같은 김달수 비판은 식민지 말기에 친일적 기관지인 『국민문학(国民文学)』과 『매일신보(毎日新報)』 등에 『태백산맥(太白山脈)』과 『바다로의 노래』 등을 연재 중이던 당시의 김사량에 대하여 김달수가 보인 냉소적인 태도와 아주 흡사한 점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김사량이 그러한 잡지나 신문에 작품을 발표하는 것이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웬지 비참한 기분이었다. 나는 당시 『경성일보』의 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도 역시 그러한 더러움에 물들어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14) 이노우에 히사시(井上ひさし),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編著 『座談会 昭和文学史 第五巻』 集英社, 2004, 271-273쪽.

(金史良がそういう雑誌や新聞に作品を発表するというのが、決していい気持ちでなかったことはたしかであった。何かみじめな感じであった。私は当時京城日報の記者をしていたのであるが、彼もおなじようにそのよごれに染まってゆくのかと思われた。15)

이러한 김달수의 생각을 바꾸어 말한다면, 일종의 애증 어린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김석범의 김달수에 대한 평가 역시 이러한 감정이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같은 피지배 민족으로서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작가들에 의한 재일한국인 문학에 대한 평가는 타자인 일본인들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작가 스스로의 내면세계의 모순과 기만성을 심각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일본인들의 평가는 상당히 피상적인 감상문 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김석범의 비판은 자칫 현실참여적인 문학 전반에 대한 회의론으로 비화될 우려를 내포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김달수의 작품 중에는 일본인들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작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조선을 식민지배한 일제에 대한 적개심과 패전 이후의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혁명을 갈구하는 염원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김달수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친일행적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촉구와 식민지성을 떨쳐내지 못한 사소설적 작법에 대한 것이고, 김석범 자신은 이에 대한 반성으로 상상력을 동원한 많은 작품을 써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제1기 재일한국인 문학을 대표하는 김달수 문학 전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 2. 김달수 문학의 원점은 『후예의 거리(後裔の街)』라는 기존 평가의 문제점

해방 이후 본격적인 창작활동에 돌입하는 김달수의 문학을 고찰 할 때 장편 『後裔の街(후예의 거리)』를 그 출발점에 위치하는 작품으로 생각하

15) 김달수 「김사랑·사람과 작품(金史良·人と作品)」, 金達壽編著『金史良作品集』再刊 異論社, 1972. 323 쪽

는 경우가 많다. 앞에 인용한 이소가이 지로(磯貝治良)의 문장에서도 「『후예의 거리(後裔の街)』를 해방 이후의 김달수 문학의 출발점으로 보고 이 작품이 『현해탄(玄海灘)』의 전편(前篇)」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좀 거리가 있다. 특히 『현해탄(玄海灘)』의 전편이라는 주장은 이 작품의 속편으로 집필된 것이 확실한 『태백산맥(太白山脈)』의 전편이라는 의미도 갖게 되어 김달수 문학의 원점에 위치하는 작품이라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예의 거리(後裔の街)』는 집필 시기 및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는 내용과 사상에서 『현해탄(玄海灘)』이나 『태백산맥(太白山脈)』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방 이후의 김달수의 작품은 대부분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확보와 북한의 공산정권이 중심이 된 민족의 통일이라는 두개의 목표를 선명히 하고 있는데 반해, 『후예의 거리(後裔の街)』에는 후자의 주장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후예의 거리(後裔の街)』는 1944년 2월에 서울의 『경성일보(京城日報)』 기사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돌아와 만든 회람잡지 『계림(鷄林)』에 제2장까지 발표한 뒤, 1946년 3월에 창간된 『민주조선(民主朝鮮)』의 편집장이 되면서 이 잡지의 창간호(1946년 4월)부터 10호(1947년 5월)에 걸쳐 연재한 작품이다. 그리고 1948년 3월에 제8장으로 구성된 『장편소설-후예의 거리(長編小説 後裔の街)』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는데, 〈작품후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이 작품은 처녀작은 아니지만 나의 최초의 장편이고 그리고 최초의 출판이다. 이런 의미로는 처녀작이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말도 많다.

(この作品は処女作ではないが私の最初の長編であり、そして最初の出版である。この意味では処女作でもあり、また私にとって言うべきことも多い。16)

작가 스스로가 장편 『후예의 거리(後裔の街)』는 처녀작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의 최초의 작품은 일본대학 예술과 재학 중이던 1940년에 발표한 단편 『位置』이며, 『후예의 거리(後裔の街)』를 발표하기까지 6편의 단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조련(朝連)<sup>17)</sup>의 영향을 받고

16) 김달수 「작품후기」 『金達壽小説全集 四』 筑摩書房, 1980, 297쪽.

17) 재일조선인 조직은 조련(朝連=在日朝鮮人連盟, 1945년 10월 결성)으로 출발하여, 민전(民戰=在日朝鮮民主主義統一戰線, 1951년 1월 결성)을 거쳐, 조총련(朝総連=在日本朝鮮人総連合會, 1955년 5월 결성)에 이르고 있다.

있던 『민주조선(民主朝鮮)』을 주된 활동 무대로 삼아 꾸준히 단편을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재일조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민족적 갈등과 고뇌가 중심을 이루다가 점차 조련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포함하는 쪽으로 움직여 갔다.

그러던 것이 1948년 10월에 발생한 <여수·순천 사건>을 다룬 작품 『반란군(叛亂軍)』을 1949년 8월에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의 공산정권에 조국통일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집필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이때부터 그의 작품 속에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북한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공산주의 이념이 항시 공존하여 『태백산맥(太白山脈)』의 집필을 마치는 1968년까지 지속 된다.

한편 그의 대표작인 『현해탄(玄海灘)』과 『태백산맥(太白山脈)』에는 작가 자신의 분신인 서경태(西敬泰)라는 관찰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자신의 친일적 행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시도하면서 조국의 해방과 통일의 투쟁 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나약함에 좌절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반란군(叛亂軍)』 이후의 변모한 김달수의 작품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후예의 거리(後裔の街)』는 차라리 일제의 식민통치 아래에서 파괴된 인간성으로 자멸해 가는 지식인을 그려낸 김사랑의 『천마(天馬)』<sup>18)</sup>와 유사한 작품이라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작가는 태평양전쟁의 돌입을 앞둔 해, 즉 1941년 하반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조선·경성의 조선 지식인의 청춘과 생활을 소재로 일본제국주의 치하에 있는 조선인·민족을 그려내려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 특히 일본인들 앞에 제시하고자 하였다.

(作者はあの太平洋戦争への突入を前にした年、すなわち1941年の後半を時代的背景として朝鮮・京城における朝鮮のインテリゲンチヤの青春と生活をとらえることによって、日本帝国主義治下にある朝鮮人・民族を描き出そうとした。そして人々の前に、特に日本人の人々の前に提出したかったのである。19)

위의 인용문은 김달수의 작품 『후예의 거리(後裔の街)』를 높이 평가하

18) 1940년 6월 『文芸春秋』에 발표한 중편 식민치하에서 황국신민화에 휩쓸려가는 지식인을 그려내고 있다.

19) 주(16) 『金達壽小説全集 四』, 小田切秀雄(오다기리 히데오) 「後裔の街 후예의 거리」 解題」 301쪽.

며 일본문단에 적극 추천한 오다기리 히데오(小田切秀雄)의 글인데, 김사량의 『천마(天馬)』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라하라 고레히토(蔵原惟人) 역시 오다기리 히데오와 거의 같은 내용의 작품 평가를 「추전의 말」로 신고 다음과 같은 견해도 덧붙였다.

여기에는 일본적인 사소설의 영향이 적고, 사회를 다면적이며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올바른 자세가 엿보인다.

(ここには日本のな私小説の影響が少く、社会を多面的に、客観的にとらえようとする正しい努力が見られる。20)

〈개인적인 체험〉을 다룬 작품이 김달수 문학의 특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때, 구라하라 고레히토(蔵原惟人)의 위와 같은 견해는 특별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초기의 작품인 『후예의 거리(後裔の街)』가 그만큼 이후의 다른 작품들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김사량의 『천마(天馬)』의 영향을 받은 김달수가 그 나름의 집필을 시도한 결과로 탄생한 작품일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후예의 거리(後裔の街)』를 『현해탄(玄海灘)』 및 『태백산맥(太白山脈)』과 연결시켜 해방 이후의 김달수 문학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려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해탄(玄海灘)』 역시 해방 이전의 식민지 조선을 그린 작품이라는 데서 『후예의 거리(後裔の街)』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2년에 집필된 『현해탄(玄海灘)』에는 일제의 식민치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암약하는 지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거의 모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현재의 김일성의 조국광복회에 의한, 또는 조선독립동맹에 의한 무장투쟁은 분명한 역사적 필연에 의해 이어져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現在の金日成の祖国光復会による、あるいはまた、朝鮮獨立同盟による武装抗争は、ちゃんとその歴史的必然によってながれてきていることがよくわかる。21)

20) 주(16) 『金達壽小説全集 四』, 蔵原惟人(구라하라 고레히토) 「後裔の街(후예의 거리) 추전의 말」 306쪽.

21) 김달수 『玄海灘』 『金達壽小説全集 六』 筑摩書房, 1980, 222쪽.

위의 인용문은 『현해탄(玄海灘)』의 주요등장인물인 백성오(白省五)의 독백의 내용인데, 이 외에도 곳곳에 김일성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이 엿보이고 있어서 북한의 공산정권에 의한 조국의 해방과 통일에 정당성을 부여한 채 쓰인 작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후예의 거리(後裔の街)』와는 집필동기와 목적이 판이하게 다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해탄(玄海灘)』과 『태백산맥(太白山脈)』에는 서경태(西敬泰)라는 신문기자를 작가의 분신으로 등장시켜 개인적 체험소설이라는 색채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 반면에, 『후예의 거리(後裔の街)』에서는 전술한 구라하라 고레히토(蔵原惟人)의 작품 평가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작가가 자신을 연상시키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최계우(崔啓友)라는 신문기자가 작중에 등장하여 비교적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해방 이후의 김달수로 하여금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작품 활동에 들어서게 만든 동기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추구하고 더불어 이념 투쟁으로 인한 조국 분단의 현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여수·순천 사건> 이고, 이를 처음으로 작품화 한 것이 『반란군(叛亂軍)』이다. 이렇게 뚜렷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그의 작품 활동은 미완성 작품이긴 하지만 장편 『태백산맥(太白山脈)』으로 일단락을 짓게 된다. 그 이유는 이념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던 국제정세의 완화와 함께, 남·북한의 정권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그동안 논의 대상에서 제대로 거론된 적이 없는 『반란군(叛亂軍)』의 고찰을 통해 『태백산맥(太白山脈)』으로 이어지는 김달수 문학의 원점을 추구해가고자 한다.

### 3. 『반란군(叛亂軍)』과 집필되지 못한 『태백산맥(太白山脈)』 속편

김달수의 장편 『태백산맥(太白山脈)』은 1964년 9월부터 1968년 9월까지 『文化評論』에 연재되었는데, 이 작품과 관련하여 작가 자신의 소감을 <작품 후기>에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써온 장편 중에서 가장 긴 작품이 되었는데, 이 작품은 집필에 있어서도 가장 공을 들인 작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에 나는, 지금부터 약 15년 전 쯤에 『현해탄』이라는 장편을 같은 치쿠마쇼보(筑摩書房)에서 출판하였는데, 『태백산맥』은 이의 속편이다.

(私のこれまでの長編のうちでもっとも長いものとなったが、この作品は執筆の上でも、もっとも力を尽くしたものの一つである。さきに私は、いまから15年ほどまえ、『玄海灘』という長編をおなじく筑摩書房から出版しているが、『太白山脈』はその続編ともいべきものである。22)

작가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태백산맥(太白山脈)』은 『현해탄(玄海灘)』의 속편으로, 『현해탄(玄海灘)』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태백산맥(太白山脈)』에도 그대로 등장한다. 시대적 배경은 『현해탄(玄海灘)』이 태평양 전쟁 중의 서울이고, 『태백산맥(太白山脈)』은 해방 직후의 서울이 중심 무대로 되어 있는데, 양쪽 모두 당시의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조선인들의 생활과 저항을 주제로 삼고 있다.

한편 작가 김달수는 이 두 작품과 관련하여 「나는 조만간 이번에는 『太白山脈』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私はいずれ近く、こんどは、『太白山脈』の続編ともいべきものにとりかからなくてはならないと思っている)」<sup>23)</sup>며 자신의 심중을 밝혔는데, 그 후 11년이 지나도록 이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한 재일한국인 작가 김석범(金石範)은 1980년에 다음과 같이 언급한바 있다.

김달수의 내부에는 해방 이후 그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계속 걸어온 사상적인 일관성이 있는데, 『太白山脈』의 속편 완성에 대한 의지 또한 이러한 일관성에 의해 굳건히 뒷받침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太白山脈』 속편의 취재를 위한 여행을 실현시켜야만 한다.

(金達寿の内部には、解放後彼が紆余曲折を経ながらも歩み続けてきた思想的な一貫性があるのであり、しかも『太白山脈』の続編完成への意志はまたこの一貫性に強く支えられているのである。その意味でも『太白山脈』続編の「取材」のための旅は果たせねばならない。24)

22) 『金達寿小説全集 七』 筑摩書房, 1980년, 505쪽.

23) 주(22) 『金達寿小説全集 七』 506쪽

24) 주(22) 『金達寿小説全集 七』 월보2, 1980년 5월, 김석범의 〈『태백산맥』의 속편을(『太白山脈』の続編)〉.

이는 『태백산맥(太白山脈)』의 속편을 집필하기 위해서는 고국을 방문하여 필요한 취재를 성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김달수를 지켜보다 못한 김석범의 글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김달수를 비롯한 잡지 『三千里』 편집위원 등 일행이 1981년 3월 한국방문을 실현시킨다. 같은 잡지의 편집위원이었던 김석범이 <군사독재정권의 공식초청에 의한 방한>은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결과를 초래 할 뿐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sup>25)</sup>하였지만 한국 방문을 강행하였다. 어렵게 한국방문을 성사시킨 김달수 일행은 지리산 자락에 있는 화엄사와 순천을 거쳐 고향인 창원 방면으로 향하던 중, 화엄사 부근에서 잠시 머물렀을 때 떠올렸던 생각을 기행문 형식의 작품 『고국까지(故国まで)』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내가 이 사건(여수·순천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조선에서 들려오는 입소문 외에, 당시 우연히 찾아간 다카미 준씨 집에서 보게 된 미국의 사진잡지 『라이프』에 의해서였다. 그 때의 『라이프』 잡지에는 <여수·순천 사건>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어느 사진이나 시체가 겹겹이 쌓여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고, 잡혀서 줄줄이 묶여 있는 사람들을 담은 것이었다. (중략)

나는 다카미 준씨가 가지고 있던 그 『라이프』 잡지를 본 뒤, 1949년에 『반란군』이라는 중편을 쓰고, 그리고 또 남조선의 게릴라를 주제로 한 『대한민국에서 온 남자』라는 작품을 썼다. 두 작품 모두 관념이 앞선 실패작인 셈이다. 내가 훗날에 장편 『태백산맥』을 쓰기 시작한 것도 <여수·순천 사건>과 연루되어 지리산 등의 게릴라가 된 사람들의 운명과, 그 묘비명을 쓰고 싶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언젠가는 그 속편을 쓰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지금도 그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좀 전에 찾았던 지리산의 산세를 눈여겨 본 것도 다 그 때문이었다.

(私がこの「事件」のことを知ったのは、朝鮮からの口伝のほか、当時、たまたまたずねた高見順氏のところで見せられたアメリカの写真雑誌『ライフ』によってだった。『ライフ』のその号は「麗水・順川事件」を特集したもので、写真はどの頁も、死屍累々といったことばそのものであり、捕らえられて数珠つなぎとなっている者たちのそれであった。(中略)

私は高見順氏にその『ライフ』を見せられたことから、1949年に『叛乱軍』という中編を書き、さらにまた南朝鮮のゲリラのことを主題とした『大韓民国から来た男』という作品を書いた。これはどちらも観念の先立った失敗作というよりほかないものであるが、つづけて私

25) 주(12) 『국경을 초월하는 것(国境を超えるもの)』 88 쪽

は後年、長編『太白山脈』にとりかかることになったのも、「麗水・順川事件」から智異山などにおけるゲリラとなった人々の運命、その墓碑銘を書きたいと考えたからにほかならない。

いつかはその続編を書くということで、私は今もその資料をあつめているが、さきにたずねた智異山の山容に目をこらしたりしたもの、そのためにほかならなかった。26)

이러한 김달수의 회상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주로 서울을 무대로 전개되는 장편 『태백산맥(太白山脈)』의 속편이 집필 되었다면 〈여수·순천 사건〉을 배경으로 펼쳐졌을 것이라는 점이고, 그 둘째는, 미국의 사진잡지 『라이프』에 실린 〈여수·순천 사건〉 특집을 보고 중편 『반란군(叛亂軍)』과 『대한민국에서 온 남자(大韓民國から来た男)』를 썼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중편에 대해서는 사건현장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닌 관념적인 소설이어서 실패작이라고 김달수 스스로가 폄하하고 있지만, 작품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내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온 남자(大韓民國から来た男)』의 경우는 『반란군(叛亂軍)』의 집필을 끝내자마자 다시 쓰기 시작한 작품인데 경상북도에서 게릴라 활동을 하다 일본으로 도망쳐온 남자를 통해 남한의 정세를 파악하고 그의 도움으로 주인공이 남한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작품 배경에서 〈여수·순천 사건〉으로 상징되는 투쟁에 합류하기 위해 주인공들이 지리산으로 잠입하는 『반란군(叛亂軍)』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내용 전개에서도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을 준다.

작가 김달수는 이 두 작품을 동일선상에 놓고 혹평하고 있지만, 『반란군(叛亂軍)』의 경우는 그 소재와 작품배경이 총체적인 민족의 난제였던 〈여수·순천 사건〉을 긴장감 있게 다루고 있는 최초의 작품이라는 것과, 뒤에 이어지는 김달수 작품들의 모태가 되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시도된 작품을 더욱 완성도 높게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현해탄(玄海灘)』과 『태백산맥(太白山脈)』이 집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언젠가는 『반란군(叛亂軍)』에서 시도했던 바를 완성시키는 작품으로서의 『태백산맥(太白山脈)』 속편이 기약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달수는 끝내 『태백산맥(太白山脈)』의 속편 집필을 달성하지

26) 김달수 『고국까지(故国まで)』 가와데쇼보신샤(河出書房新社), 1982년, 139, 140쪽.

못한 채 1997년 작고하고 말았다. 그렇다하더라도 김석범이 「대하소설 『화산도(火山島)』를 완성해 놓고 보니 (자신의)모든 작품의 原点인 중편 『까마귀의 죽음(鴉の死)』으로 되돌아와 있었다」<sup>27)</sup>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달수의 『반란군(叛亂軍)』은 1968년에 『태백산맥(太白山脈)』의 집필을 마치고 소설 창작과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까지의 거의 모든 작품의 原点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 4. 『반란군(叛亂軍)』의 작품 세계

### 4-1. 작품의 사상적 배경

『반란군(叛亂軍)』은 작품의 두 주인공 「추훈(秋薰)」과 「인규(仁奎)」가 남한에서 발생한 <여수·순천 사건>의 투쟁 현장에 합류해 가는 과정을 매우 심도 있게 그려내고 있는데, 집필 당시의 작가가 처해있던 주변상황과 자라온 성장과정을 거의 사실대로 반영하고 있다. 작품분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점이 상당부분 밝혀지겠지만, 김달수의 자서전적 저서인 『나의 문학과 생활(我が文学と生活)』과 『반란군(叛亂軍)』을 참고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년 시절을 보낸 김달수의 성장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김달수의 부친은 친일적 지주들과 일본인 악덕 고리대금융자에게 조상 대대로 물려온 토지를 모두 빼앗기고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힘든 노동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내 사망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나이 어린 김달수의 생활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적응하며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던 김달수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사상체계는, 부당한 식민 지배를 지속해온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반발과, 친일 지주계층을 일소함으로써 조선의 가난한 민중을 노예적인 생활로부터 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둘째로, 일본제국주의가 미국에 패함으로써 조선이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했다하고는 하지만 식민지배의 주체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그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1948년 8월에 성

27) 김석범 『故国行』 岩波書店, 1990, 176쪽.

립된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괴뢰정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셋째로, 김달수 자신 역시 일제의 식민지배 말기에 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던 『경성일보(京城日報)』 사회부 기사를 하였다는 죄책감을 씻어 내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순수한 조선민족의 정권으로 생각한 북한의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점이 다. 재일조선인 사회는 8·15 해방을 맞이하고 얼마 안 있어 재일조선인 연맹(朝連)을 발족시킨다. 이 조직은 자연스럽게 북한의 공산주의정권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사상적인 문제를 떠나서 미국의 사주를 받는 친일파 괴뢰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라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그 이면에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반란군(叛亂軍)』 집필 당시의 김달수의 마음속에는 이상과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추훈(작가)은 <여수·순천 사건>의 투쟁현장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4-2. 작가의 체험을 토대로 한 작품의 형상화

『반란군(叛亂軍)』은 1949년 『조류(潮流)』 8, 9월호에 발표되었다. 이 작품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사진잡지 『라이프』가 특집으로 보도한 <여수·순천 사건>을 접한 재일조선인 청년들의 갈등 양상을 중심 주제로 전개된다.

작품은 주인공인 추훈(秋薰)과 인규(仁奎)가 독립된 조국건설을 목표로 혁명투쟁을 실천하고 있는 지리산의 게릴라와 합류를 위해 떠난다는 것을 예고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다. 작가 김달수는 이 작품을 통해 조국의 혁명 전선에 참여하고 싶다는 욕망과 갈등을 사소설(私小說)적인 묘사로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추훈과 인규라는 두 주인공을 매개로 작가의 심적 갈등 양상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묘사해 내고 있는데, 이 두 주인공이야말로 작가 자신과 그의 실존하는 친구를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본고의 작품분석에서는 사소설적 요소를 그 사상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고찰해가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반란군(叛亂軍)』의 내용을 인용함과 동시에, 작가 자신의 자작 연보도 함께 발췌하여 기술해 가는 형식

을 취했다. 즉, 작품 속의 두 주인공의 행적을 작가 자신과 실제로 존재했던 친구 장두식의 모습에 투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은 작가 김달수가 조선민족으로서 자각해가는 실제 과정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추훈이 작가 자신의 분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추훈의 생각이 곧 작가의 생각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추훈은 우연하게 인규와 같은 남조선 경상남도, 게다가 군(郡)까지도 같은 고향에서 그는 열 살을 두해 넘겨 일본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소학교도 야간과 주간 등을 대략 2년 정도 밖에 다니지 못하고,  
(秋薰は偶然に仁奎と同じ南朝鮮慶尚南道の、しかも郡をも同じくしている故郷から彼は10歳22年も過ぎてから日本へ渡ってきたので、小学校も夜間・昼間などで前後二カ年くらいしかゆかず、28)

(김달수 자작 연보)<sup>29)</sup>

1919년 11월 27일(旧曆) 경상남도 창원군 출생.

1930년 (10세) 데리러 온 형 성수를 따라 일본으로 도항.

1931년 (11세) 낫도(納豆)팔이, 폐지수집 등을 하면서 오이(大井)야간 소학교에 다님. 처음으로 일본어를 배움.

— 그때 그는 W대학에서 발행하고 있는 강의록으로 실력을 쌓아 들어간 야간 중학 3학년에 다니고 있었다.

(そのとき彼はW 大学で発行している講義録で実力をつけて入った夜間中学の三年に通っていた。30)

— 추훈과 인규는 「고학(苦学)」과 동시에 집안을 꾸려나가야 했기 때문에 토목 공사장, 폐지수집, 공장일 등을 하였다. 기묘한 지식계급인 셈이었다.

((秋薰と仁奎は)「苦学」と同時に、一家の支えにもならなければならぬところから、これはたいてい、土工、屑拾い、屑屋、工場働き、その他であった。奇妙な智識階級たちである。31)

(연보)

1936년 (16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로 옮겨, 영화기사 견습,

28) 『金達寿小説全集 一』 「叛乱軍」, 筑摩書房, 1980, 286쪽.

29) 김달수는 자작연보를 남겼는데, 본고에서 인용하는 연보는 김달수의 자작연보를 보다 충실하게 보완한 최효선의 『海峽に立つ人—金達寿の文学 生涯』(批評社, 1998)을 참고로 하였다. 이하의 인용에서는 '연보'라 함.

30) 주(28) 『金達寿小説全集 一』 「叛乱軍」 286쪽.

31) 주(28) 『金達寿小説全集 一』 「叛乱軍」 287쪽.

고물상, 토목일, 그리고 고물상을 하였다. 이리는 사이에 몇 번 인가 야간 중학에 통학을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와세다 대학 강의록을 보기도 하면서 독학. 장두식(張斗植)과 알게 되어 등사판 잡지 《오타케비(雄叫び)》 등을 만들었다.

인용한 연보는 자작연보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것인데, 두 사람의 주인공 중에서도 〈추훈〉을 작가 자신의 분신으로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어난 고향을 비롯하여 일본으로 건너온 시기<sup>32)</sup>,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힘겹게 소학교에 다닌 점, 와세다대학 강의록으로 공부 하였던 점 등은 작가 자신의 실제 체험을, 물론 창작 과정에서 조금씩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전개될 주인공의 행동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고방식 역시 작가 자신이 실제 경험했던 일을 반영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인 〈인규〉도 실존했던 인물인지 아니면 작품 속의 가공인물인지 관심을 끈다. 이에 관해서는 1936년도의 연보만 보더라도 「장두식과 알게 되어 등사판 잡지 『오타케비(雄叫び)』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장두식이 작품 속의 〈인규〉라는 것을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그리고 김달수의 자서전 『나의 문학과 생활(我が文学と生活)』의 내용 중에는 이를 뒷받침 할 만한 확실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데, 장두식이 김달수가 운영하고 있던 폐품 분류상으로 처음 찾아 온 날의 일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장두식 역시 나와 같은 경로를 밟아왔다. 나보다 세 살 나이가 많았던 그는, 소학교 무렵부터 신문배달이나 토목일 같은 것을 하면서 부모들과 함께 이곳 저곳을 전전하였는데, 고물상, 그 중에서도 폐품을 분류하는 일은 처음인 것 같았다.

나는 나중에 장두식과 그 일가에 대해서 『잡초와 같이』라는 단편에 쓰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는 다른 작품 『거짓말하는 여자』 『반란군』 등에도 형태를 바꾸어 등장시켰다.

(張斗植はこれまた私と同じような経路を踏んで来ていたが、私より三歳年上だった彼は、どちらかというと、小学校のころから新聞配達や土方などをしながら、親たちといっしょにあちらこちらを転々としていたので、屑屋、しかもその仕切りをするというのは、このときがはじめてのようだった。

32) 자작 연보에는 10세 때로 되어있는데, 작품 속에서는 12세 때로 나온다.

私はのち、張斗植とその一家のことを『雑草の如く』という短編に書いており、彼は他の作品（『嘘をつく女』『叛乱軍』など）にもかたちを変えて登場している。33)

작가 스스로가 장두식을 『반란군(叛乱軍)』에 등장시켰다고 확실히 언급하고 있으므로 추훈과 인규는 김달수 자신과 장두식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는 이 두 사람이 미묘한 공생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실제의 두 사람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인규는 돌연 어느 날,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추훈과 그와의 사이에서 추훈이 리드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것은 추훈이 힘차게 자신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에 그는 막연한 외로움이 섞인 쓸쓸한 기분을 맛보아야만 했다. (仁奎は突然ある日、思い知らされるようにして秋薫と彼との間には、そのリードが秋薫にあることを知った。それはぐんぐんと秋薫がはるかに自分より進んでいるということで、彼は或るさびしさの入り混ざったかさかさした思いを味わさ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34)

— 추훈은 조선인으로서 거의 불가능했던 당시의 이 시(市)에 본사를 두고 있던 이 현(県)의 신문사에, 그 사장을 수차례에 걸친 편지와 면접으로 설득하여 입사했다. (중략)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추훈은 몇 개월 뒤에는 다시 그 사장을 설득해서 인규까지도 그 신문사에 입사시켰다.

(秋薫は朝鮮人としてはそれはほとんど不可能のはずであった、当時この市に本社をもっていたこの県の新聞社にその社長を数回の手紙や面接で押しきって入社した。(中略)

しかしそればかりではなく、秋薫は何ヵ月かの後には、更にその社長を押し切って、仁奎をもその新聞社に入社させた。35)

위에 인용한 작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추훈이 인규를 항상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두 사람의 실제 관계에 대해서 김달수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 사이에 (그는) 일본대학의 사회학과를 졸업하지 못하고 도중에 南洋의 토리시마에 토목 인부로 돈 벌러 갔다 온 장두식까지도, 나는 히구치사장에게

33) 김달수 『나의 문학과 생활(我が文学生活)』 청구(淸丘)문화사, 1998년, 55쪽.

34) 주(28) 『叛乱軍』 290쪽.

35) 주(28) 『叛乱軍』 291쪽.

부탁하여 가나가와신문에 입사시켰다.

(その間、彼は日大の社会科を卒業することができず、途中から南洋の鳥島へ土方として出稼ぎに行つて帰つた張斗植も、私は樋口社長にたのんで、神奈川新聞に入社させてもらっていた。36)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추훈이 김달수이고 인규가 장두식이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 진다. 그런데 허구를 내포하고 있는 사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김달수 자신이 장두식보다 뛰어났다고 하는 우월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작품을 통해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장두식 역시 김달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를 보면 『반란군(叛亂軍)』이 얼마나 작가의 체험을 중시한 사소설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곳(横須賀)에 정착하게 되어 이웃에 있던 지금의 작가 김달수와 친교를 맺게 되고부터는 나의 마음속에 광명이 넘치고 뚜렷하게 자신의 나아갈 목표가 보였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흔들림 없는 신념을 가지고 장래의 목표가 <문학> 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었다. 내가 21세였고 그는 까까머리인 아직 18세의 소년이었다. ……

서로 간에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 해 보니, 우리들은 거의 같은 처지에서 자라나고 같은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일본에 건너간 부모들이 떼어놓고 가는 바람에 조모(나의 경우는 외조모)에 의해 길러진 것도 그렇고, 소학교도 그는 야학을, 나는 <빈곤 아동> 으로서 시의 보호를 받았는데, 둘 다 가난한 처지에서 졸업했다는 점도 거의 같았다.

(ところが、私がそこ(横須賀)に住みつくようになり、隣りにいたいまの作家・金達寿と親交を結ぶようになってからというもの、私の心のなかが光に満ちて、鮮やかに自分のすすむべき目標が照り映えたのだった。そこで私ははじめて、揺ぎなき信念をもって、将来の目標を「文学」だということに、しかとうち立てることが出来たのである。私が21歳で、彼は坊主頭の、まだ18歳の少年であった。……)

오たがい身の上を語りあってみると、まったく私たちはおなじ境遇で育ち、おなじ歩み方をしているのであった。日本に渡る両親に置き去りをくって、祖母(私は母方の祖母)に育てられたのもそうだったし、小学校も彼は夜学を、私は「貧困児童」として市の保護をうけて、おたがい貧しい身の上で卒業している点でもよく似ていた。(37)

36) 주(33) 『나의 문학과 생활(我が文学と生活)』 97쪽.

37) 주(33) 『나의 문학과 생활(我が文学と生活)』 59쪽. 김달수는 장두식의 『어느 재일 조선인의 기록(ある在日朝鮮人の記録)』에서 인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작품내용과 자작연보의 비교를 통해 추훈(작가 자신)과 인규(장두식)의 관계가 명확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난한 생활을 꾸려가면서도 조선인으로서 받고 있던 차별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노력이라는 것은 공부를 통해 차별이라는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었는데, 대학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추훈은 학력을 위조<sup>38)</sup>해가면서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고학(苦學)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성과는, 현실의 모순 즉, 나라를 잃은 피압박민족으로서 당하는 차별의 부당성을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가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으며, 이의 성취를 위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투쟁의식의 성립이었다. 작품 속에서도 그 실천을 위한 행동이 묘사되어 있다.

— 8·15 해방과 함께 펼쳐 일어난 추훈의 모습은 늙름하기 그지없었다. 조선인 연맹의 창립과 조직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중략) 동포의 정용공원(工員), 군부(軍夫)들에게 그들의 임금과 합당한 수당을 받게 하여 귀국시킨다는 투쟁도 벌였다. 추훈은 언제 그렇게 풍부한 언변과 민족적 정열을 숨기고 있었는지 궁금하리만큼, 갑자기 웅변가가 되더니, 어느새 그는 사람들 사이에 민족적 투사로 우뚝 섰다.

(8·15의 起ち上がりにおける秋薫の姿はまたあざやかなものであった。まず朝鮮人連盟の創立と組織運動を巻き起こし、それと同時にその最初の仕事として、(中略) 同胞のいわゆる徴用工員、軍夫たちにその資金を正当な手当てをとって帰すたたかいを起こしたのである。秋薫はどこにそんな豊富な語らいと民族的情熱をかくしていたのかと思われるほど、急に雄弁家になり、いつの間にか彼は人々の間に、民族的闘士として立ちあらわれた。39))

이 대목과 관련하여 작가 김달수 자신은 스스로의 행적을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남겨 놓고 있다.

그리하여 나는 이후 만 3년에 걸쳐 잡지 『民主朝鮮』의 편집과 집필 그리고 경영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朝連〉가나가와현 본부와 요코스카 지부의 상임으로도 일해야 했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지금

38) 주(33) 『나의 문학과 생활(我が文学と生活)』 74쪽.

39) 주(28) 『叛亂軍』 292쪽.

생각해보면 〈朝連〉의 활동으로는 게이힌(京浜) 공업지대와 요코스카의 군수 공장에 동원되었던 귀국 징용노동자들에게 수당과 위로금을 받아 주는 일 같은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뭐가 그리 바빴는지 지금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そうして、私は以後まる3年間にわたって雑誌『民主朝鮮』の編集と執筆、経営にたずさわることになるのであるが、一方ではまた「朝連」神奈川県本部や横須賀支部の常任として働か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から、まったく忙しいことこのうえなかった。いま考えてみると、「朝連」の活動としては、京浜工業地帯や横須賀の軍需工場に動員されてきていた帰国徴用労働者たちに、手当て、慰労金をとってやるなどということがあったが、しかしそれにしてもなにがそんなに忙しかったのか、いまはよく思い出せなくなっている。40)

이상으로 작가의 체험을 『반란군(叛乱軍)』에서 어떻게 형상화 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작가의 자작연보와 작품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그 실제의 모습을 확인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작가 자신의 분신임을 입증한 것은 작품의 기초를 이루는 주인공들의 사고와 철학 역시 작가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4-3. 작가의 현실 인식과 조국 통일에 대한 염원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 사회의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김달수는 〈여수·순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작품 속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 (추훈이 朝連을 그만둔) 11월에는, 그들의 운동이 결국은,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남조선에 있어서는 10월 말, 전라도의 여수와 순천에서 이른바 국군의 반란이라는 큰 사건이 발생하여, 그들이 목표로 하는 조국의 혁명과 독립에 중요하고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고 있을 때였다. (중략)

(조선은 8·15로 해방을 맞이했으나) 바로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군대에 점령당함으로써 과국을 맞았다.

((秋薫が朝連を辞めた) 11月という月には、彼等の運動が結局はそこに結び付いている南朝鮮においては10月の末、全羅南道の麗水・順天から、いわゆる国軍の叛乱という大きな事件が起こっており、彼等の目指す祖国の革命と独立に重要な新しい段階を示しているときであった。(中略)

(朝鮮は8·15で解放を迎えたが) ……その朝鮮はすぐに、米ソ両軍に占領されたことで、破局的となった。41)

40) 주(33) 『나의 문학과 생활(我が文学と生活)』 146쪽.

— 조국에 있어서의 혁명과 독립을 위한 이와 같은 정세가 일본에 있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리가 없었다.

(祖国における革命と独立のためのこのような情勢が、日本における彼等に直接的の反映をもたらさないはずはなかった。42)

인용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작가 자신이 남한에서 일어난 〈여수·순천 사건〉으로 조국 통일의 꿈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작가 김달수가 추훈과 인규를 〈여수·순천〉으로 보내서 남한의 혁명군과 함께 싸우도록 내용을 전개시켜가는 이유도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이승만 정권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니 어머니, 정말 어느 쪽이든 좋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이승만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도 좋아요? 살지 못해 밀항을 해서 일본으로 되돌아올 것이고, 게다가 자식은 감옥으로 끌려가는데 말이에요. 우리들이 돌아간다는 것은 감옥으로, 형무소로 직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どっちでもいいってお母さん、ほんとうにそのどっちでもいいんですか。それなら李承晩の大韓民国でも帰っていきましようか。また暮せなくて密航をしたりして日本へもこ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り、またどこかへ流れ出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り、しかも息子は監獄へつながれるし、——僕たちが帰ってゆくということは、監獄へ、刑務所へ向かって真っ直ぐに帰ってゆくことですからね」 43)

1949년 『반란군(叛亂軍)』 집필 당시의 김달수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노선에 입각한 조선의 혁명과 통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관계로 조련(朝連)의 일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괴로워하는 모습도 작품 속에 엿보이고 있다.

인규가 시의 지부에서 현(県)본부의 상임이 되었을 때, 추훈은 현본부에서 다음 중앙위원회를 기다렸다가, 중앙 총본부의 일을 하게 될 전국에서 뽑힌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로 예정되어 있었다. (중략)

41) 주(28) 『叛亂軍』 293쪽.

42) 주(28) 『叛亂軍』 294쪽.

43) 주(28) 『叛亂軍』 303, 304쪽.

그런데 추훈은 그 해 4월에 학교·교육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부터는, (중략) 4년에 걸쳐 힘든 싸움을 지속해온 朝連을 그만두고 말했다.

(仁奎がこの市の支部から県本部の常任となって上がってゆくと、秋薫はその県本部から次の中央委員会をまっ、中央総本部へ全国から選抜される数少ない一人として予定されていた。(中略)

ところが秋薫はその年の四月の学校・教育問題を激しくたたかってからは、(中略) 四年にわたって困難なたたかいをたたかってきた朝連をやめてしまったのである。(44)

『반란군(叛乱軍)』 집필 당시에 이미 김달수는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일본 거점으로 재일조선인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조련과의 마찰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엿 볼 수 있다. 실제로 김달수는 25년간이나 조직<sup>45)</sup>과의 관계를 지속해 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결국은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조직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는데, 조직의 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해온 것에 대해 「조직은 재일 조선인에 있어 조국과도 같은 것이었」<sup>46)</sup>기 때문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 말은 1949년 당시의 작가에게 있어서 조련과 연결된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조국과 같은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 공산정권의 주도로 조선을 통일하는 것에 대해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추훈과 인규를 남한의 지리산으로 보낼 것을 결심하고 집필에 임한 작가 자신이건만 현실로서는 혁명의 대열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작품의 여러 곳에 표출시키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대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38도선에 의해서 해방 되었다는 우리의 조선이 두 곳으로 분할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에 있어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다.(중략)

이 역사적인 필연 이외에 또 하나의 필연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 조선에 있어서 노동자와 농민 이외의 사람들은 민족으로서 즉 조선인으로서 민족적인 처녀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란 말인가.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중략) 38도선에 의한 분할이라는 이 현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는 투쟁이 주어졌다. 희생이다. 우리들은 새로운 우리의 민족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점차 잃어버린 민족적 처녀성을 되찾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중략)

44) 주(28) 『叛乱軍』 293쪽.

45) 주(17) 참조.

46) 주(6) 『해협에 선 사람(海峡に立つ人)』 111쪽.

우리들이 우리들의 조선으로 지금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리산이외에는 없지 않겠는가.]

(「38度線によって、解放されたというわれわれの朝鮮が二つに分割されたということは、それがおれたちにとっては決して偶然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なんだ。(中略)

この歴史的必然以外にもう一つの必然があったのだ。それはわれわれの朝鮮にあっては、この労働者、農民以外のものは民族として、つまり朝鮮人として民族的バーजन을失っ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だ。そしてそれが誰だと思う。これがおれたちなんだ。(中略)

38度線の分割というおれたちにとってはこの現実によってたたか이가与えられたのだ。犠牲だよ。おれたちは、新しいわれわれの民族のために犠牲になることで、ようやく失った民族的バーजन을取り返すことができるかも知れない。(中略) おれたちがわれわれの朝鮮へいま帰ってゆくとすれば、それは智異山以外にないじゃないか」47)

인용한 내용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곳이 「우리들은 처녀성을 잃어버렸다」라는 대목이다. 노동자와 농민 이외에는 모두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족적 전통을 지키고 민족에 있어 해악이 되는 것에는 두려워 않고 맞서 싸워나가는 민중이야말로 진정한 조선인이 아니겠는가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인 조선도 아니고 안전한 일본에 있으면서 펜을 잡은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자신들은 민족적 처녀성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 자신의 자책하는 마음이 생생하게 전해져오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조선의 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자신의 비겁함을 자책하는 한편으로, 추훈(작가)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도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몸부림이 느껴지는 문장도 여러 곳에 보이고 있다.

인규와 그의 동료들이 현재 일본에서 벌이고 있는 투쟁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지만, (중략) 그것은 매일 매일 이 생활권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싸움과,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새로운 조국에 호응해서 사람들을 그 새로운 민족·인간으로 바꿔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바뀌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일본에 있는, 그 조국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서, 그들은 그들에게 그 숙명의 적인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들의 조국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해서, 그 적이 되지 않기 위해 싸우는 인민들에 자진해서 가담하여 투쟁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仁奎たちの現在の日本におけるたたかいは、本質的には一つに結び付いているものである

47) 주(28) 『叛亂軍』 316쪽.

が、(中略) それはその日その日に直接的なこの生活権のためのたたかいと、そしてもう一つはこれからの新しい祖国に呼応して、人々を、その新しい民族・人間に変えてゆくことであった。そして自己自身も変えてゆくことであった。そして更にまた、彼等は日本にあるその祖国にたいするものの義務として、彼等は彼等にとってその宿命の敵である日本とい国が、彼等の祖国と同様に新しく生れ変ることによってその敵ではなくなろうとするその人民のたたかいに進んで加わってそのたたかいをくり展げ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48)

위에 인용한 내용은 작가 김달수 자신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스스로의 결론과 그 각오를 명료하게 정리해 놓은 대목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안에는 일본의 의식 있는 민중들과 힘을 합쳐 함께 투쟁해 가야 한다는 인식도 내포되어 있다. 이는 1946년 10월에 일본의 프로문학을 대표하는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와 평론가인 오다 기리 히데오(小田切秀雄)의 추천으로 『신일본문학회(新日本文学会)』의 회원이 된 뒤, 1949년 5월에는 일본공산당에 입당한 직후 『반란군(叛亂軍)』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달수는 북한공산정권의 일본 거점조직이라 할 수 있는 조련<sup>49)</sup>과의 관계를 지속해 온 것에 대해 「조직은 재일조선인에 있어 조국과도 같은 것이었」 이기 때문이라 했다는 것은 전술하였는데, 이 말뜻은 반드시 공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이었기에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해 가려는 결정적인 심적 동기를 『반란군(叛亂軍)』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인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싸우게 된 것은 언제부터지?」  
 「그건 8·15부터지」  
 「그거야, 그거란말이야, 인규, 문제는. 그리고 그때까지는 도대체 나는 무얼 하고있었던 말인가!」  
 (「ところがな仁奎、おれがその一生懸命たたかったのはいつからだい?」  
 「それは8・15からさ」  
 「それなんだ、それなんだよ、仁奎、問題は。それから、それまではいったいおれは何をしていたというんだい!」<sup>50)</sup>)

48) 주(28) 『叛亂軍』 298쪽.

49) 주(17)참조.

50) 주(28) 『叛亂軍』 313쪽.

「(전략)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나쁜 일이라도 했느냐 말이야. 도대체 누가 부르조아의 아들로라도 태어나서 특별한 재미라도 봤느냐 말이야」

인규는 추훈의 코트를 잡고 매달리듯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 그런건 변명이 안돼. 아니, 실은 나도 그런 변명을 자신에게 해보았던 말이야. 이거 봐!」

(「(前略)しかし僕たちはそれだからといって、何かわるいことをしたのだろうか。いや、どこかのブルジョアの息子にでも生まれていたというので、何か楽しいことでもしてきたのだろうか」

仁奎は秋薫のコートをつかんで、とり纏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

「馬鹿いえ! そんなことが弁解になるか。いや、実はおれもそんな弁解も自分につけてみただ。離せ!」51)

추훈은 그렇게 말하지만, 라면서 인규는 이틀 전 밤에 추훈이 했던 말에 대해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싸워온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자신들이 그러한 죄책감에 얽매어 있을수록 일본에서는 유일한 자신들의 조직이고 투쟁 기관인 조련(朝連)에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이 싸움을 추진해가야 하지 않겠는가.

(秋薫はそうだが、と仁奎は二日前の夜、秋薫のいったことについて思った。そうだが、それで今までたたかっていたことを放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は、それはならないと思った。寧ろ自分達がそういう負い目を背負っておればおるほど、日本においては唯一のそこしかない自分達の組織であり、たたかいの機関である朝連に参加して、積極的にこのたたかいを押し進めるべきではないか。52)

이상의 인용문에는 제일 한국인 1세대를 대표하는 민족주의 작가 김달수로 하여금 평생을 뿔뿔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게 했던 심적 갈등이 잘 묘사되어 있다. 「변명」이니 「죄책감」이니 하는 말들은 해방 이전의 자신의 행적에 대한 자성과 질책의 목소리라 할 수 있다. 해방 이전에는 「무얼 했는가」라는 물음이 작품 속에 있지만, 그 대답을 직접적으로 그려내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자책감은 해방 이전에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담당했던 신문 『경성일보(京城日報)』의 사회부 기자였던 시절의 행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전력은 민족주의 작가로서 활동하던 그에게는 참으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작가 자신의 갈등 양상

51) 주(28) 『叛乱軍』 314쪽.

52) 주(28) 『叛乱軍』 314쪽.

을 심도 있게 그려내고 있는 소설이 『현해탄(玄海灘)』과 『태백산맥(太白山脈)』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작품에는 김달수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서경태(西敬泰)라는 기사를 등장시켜 친일신문사에 근무하면서 조국의 독립투쟁에 저해되는 일을 하고 있는 자화상을 잘 묘사 하고 있다.

이러한 자책감에 시달리던 김달수는 해방을 맞이하자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듯이 제일조선인 조직의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자신의 친일행적에 대한 죄를 청산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친일파에 의존하여 권력을 창출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작품으로 일관하게 된다. 『반란군(叛亂軍)』의 주인공 추훈으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조국혁명과 독립투쟁에 나서게 만드는 것 또한 과거의 친일행적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최효선이 말하는 것처럼 「자유 의사에 의한 심경의 변화」<sup>53)</sup>에 의해 당시의 조총련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게 된다. 그리고는 작품 활동도 거의 하지 않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일본 속의 조선문화」 연구로 방향을 선회하여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김달수의 이러한 변화는 『반란군(叛亂軍)』의 주인공 추훈을 통해서 투영되는 좌절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의 정열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지만, 그 동기에 대하여 스스로가 확실히 밝힌 바 없으므로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좌절과 함께 조총련의 권위주의적인 조직체계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음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러한 갈등과 좌절을 작품 속에 담아온 김달수가 친일행적 논란이 가지지 않는 선배 민족주의 작가 김사량에 대해서 애착과 동정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973년에 출간된 『김사량 전집(金史良全集)』의 편집위원으로 힘을 쏟았던 김달수는, 수록 작품 중에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의 수용」을 담고 있는 『광명(光冥)』과 『향수(鄉愁)』에 대하여 「당시의 시국이라는 것을 고려한, 혹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약한 면이 보이고 있다. 어렵고 힘든 시대였다(當時の時局というもの考慮した、あるいは考慮しないわけにはゆかなかった弱い面がみえるものである。むずかしい、きびしい時代であった)」<sup>54)</sup>라는 짧은 평을 전집 뒤에 수록한 「해제(解題)」에 실고 있다.

53) 주(6) 『해협에 선 사람(海峽に立つ人)』 49쪽.

54) 『金史良全集Ⅱ』 河出書房新社、1973 381쪽.

김사랑이 해방 이후에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맹렬한 활약을 보인 것도 어쩌면 김달수가 젊어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친일행적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 내려는 방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 6·25 전쟁의 와중에 사망하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그 역시도 공산주의 정권과의 인연을 끊었을 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가능한데, 이러한 가정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김사랑과 김달수의 유사성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반란군(叛亂軍)』의 작품분석을 통한 작품론의 일단을 마치고자 한다. 작품분석의 과정에서 원작의 내용과 김달수의 연보를 상세히 비교·검토한 것은, 조국의 혁명투쟁 대열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인공들의 몸부림이 크면 클수록 그 주인공들의 본체인 작가 자신의 내면세계도 같이 몸부림 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인공인 추훈(작가)이 결국은 지리산의 게릴라들과 합류하여 싸우게 되는 것인 만큼 작가 자신이 언급한바 있는 『태백산맥(太白山脈)』 속편의 내용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반란군(叛亂軍)』을 집필하고 있던 당시에 이미 김달수의 내면세계 깊숙한 곳에는 작가로서의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행보가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 맺음말

재일한국인 문학 제1기를 대표하는 김달수의 작품들에서 엿보이는 정체성은 자못 선명하게 부각된다.

그것은 첫째, 조선을 식민지배한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났으며, 패전 이후의 일본사회의 변혁을 갈구했다.

둘째, 해방된 조국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 다시 분할되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소련의 지원을 받아 친일파를 일소하고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추진하는 북한의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는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확신에 바탕을 둔 것 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은 이승만이 친일파를 주축으로 한 괴뢰정권을 세웠다는 것에 대한 반발을 억제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방 직후 조직된 재일조선인연맹(조련)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조련은 조국의 독립을 추구해온 사람들을 우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조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였는데, 많은 사

람들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겸하고 있었던 탓으로, 친일적인 행적이 있는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웠다. 김달수의 경우는 일제 총독부 기관지 『京城日報』의 사회부 기사를 하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조련의 일에 매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제1기를 대표하는 김달수 문학은 위와 같은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고 단언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학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편협된 사소설적인 것이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현실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폭력과 강압에 의한 민족의 말살이라는 정체성의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이의 해결을 위한 몸부림으로서의 작품 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일일 것이므로 순수문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방 정국의 혼란한 조선을 그려낸 작품 『태백산맥(太白山脈)』은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조국 독립을 위한 투쟁을 그려낸 『현해탄(玄海灘)』의 속편으로 집필되었다. 그런데 작가 김달수가 1981년에 지리산 일대를 방문하여 「『태백산맥(太白山脈)』의 후편은 이 지리산을 무대로 싸웠던 사람들을 그려내고 싶다」<sup>55)</sup>고 말한 점으로 볼 때, 1949년 당시의 급박하게 전개되던 <여수·순천 사건>이라는 혁명의 대열에 주인공들을 합류시킨 『반란군(叛亂軍)』이야말로, 『현해탄(玄海灘)』과 『태백산맥(太白山脈)』은 물론이요, 김달수의 다른 많은 작품의 母胎가 되는 原点에 위치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 【参考文献】

-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태어나면 그곳이 고향(生まれたらそこがふるさと)』 헤이본샤(平凡社), 1999년. 112, 116, 117쪽.
- 김달수 『나의 문학과 생활(我が文学と生活)』 청구(靑丘)문화사, 1998년. 55, 59, 74, 97, 146쪽.
- 『金達壽小説全集 一』 「叛亂軍」, 치쿠마쇼보(筑摩書房), 1980년. 286, 287, 290, 291, 292, 293, 294, 298, 303, 304, 313, 314, 316쪽.
- 『金達壽小説全集 四』 筑摩書房, 1980. 297, 301, 306쪽.
- 『金達壽小説全集 六』 筑摩書房, 1980. 222쪽.

55) 주(11) 『고국까지(故国まで)』 140쪽.

- 김달수 『고국까지(故国まで)』 가와데쇼보신샤(河出書房新社), 1982년. 139, 140 쪽.
- 『金史良全集Ⅱ』 河出書房新社、1973. 381쪽.
- 김석범 『故国行』 岩波書店, 1990. 176 쪽
- 김석범 『국경을 초월하는 것(国境を超えるもの)』 文芸春秋, 2004. 88, 121-124쪽.
- 김석범 「『태백산맥』의 속편을」 『金達寿小説全集 七』 치쿠마쇼보(筑摩書房), 월보2, 1980년 5월,
- 辛基秀編著 『김달수 르네상스(金達寿ルネサンス)』 解放出版社, 2002년. 41쪽.
- 이노우에 히사시(井上ひさし),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編著 『座談会 昭和文学史 第五卷』 集英社, 2004. 271-273 쪽.
- 이소가이 지로(磯貝治良) 『〈在日〉文学論』 新幹社, 2004年. 115, 117 쪽
- 이한창 박사학위 논문 「재일교포 문학의 작품성향 연구 - 정치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 (1996년 12월). 1쪽.
- 최효선 『해협에 선 사람-김달수의 문학과 생애(海峡に立つ人一金達寿の文学と生涯)』 批評社, 1998년. 28, 49, 111 쪽
- 『金達寿小説全集 七』 筑摩書房, 1980. 505, 506쪽.
- 김달수 編著 『金史良作品集』 再刊, 異論社, 1972년. 323쪽.

## 要旨

本稿では、私小説的傾向を強く示している『叛亂軍』が、『玄海灘』と『太白山脈』はもちろんのこと、金達壽文学の根幹を成す原点にあることを立証するために、作品分析を通じて他の作品との関係を考察することをその目的としている。

金達壽は第一世代在日韓国・朝鮮人文学を代表する作家である。金達壽が小説家として活躍していた期間は、敗戦直後から1960年代終りまでの約20余年の歳月であるが、それはまさに朝鮮半島の政治情勢が急変していた時期とも重なる。こういった時代を反映して発表された作品には、植民支配の下で喘いでいる知識層の悩みと祖国解放の夢を描いた『後裔の街』(1947)と『玄海灘』(1953)があれば、アメリカ及びソ連といった外国勢力による統一祖国建設への干渉と左右分裂の激化をテーマにした『朴達の裁判』(1958)と『太白山脈』(1968)がある。

ところで、小説『太白山脈』が『玄海灘』の続編といった観点からの研究は活発に進められてきたが、『太白山脈』の原点と考えられる中編小説『叛亂軍』(1949)については今までほとんど言及されることがなかった。

韓国と北朝鮮の単独政府樹立と、これを阻止するための〈済州4・3事件〉、そして〈麗水・順天事件〉の発生などで祖国の分断を現実のものとして認識しはじめた頃執筆された『叛亂軍』は、作品の中に含まれている時代認識と思想はもちろんのこと、発表された時期からしても、金達壽文学の原点にあたる作品と位置づけても無理はないというのが筆者の見解である。

キーワード：玄海灘、太白山脈、叛亂軍、原点、麗水・順天事件、朝連、金達壽、私小説、  
在日韓国・朝鮮人

투 고 : 2006. 5. 31  
1차 심사 : 2006. 6. 10  
2차 심사 : 2006. 7. 1

住 所 : (301-773)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삼부아파트6 동53 호  
電 話 : 042-523-2709, 016-413-5841  
e-mail : ulsasuca@hanmail.net